

“네이버 등 포털 뉴스 콘텐츠 제휴, 지역 매체 대폭 늘려야”

민주 조인철·국힘 최형두 여야 의원들 국정감사서 한목소리 네이버 87개사 중 지역 매체 12개 ‘홀대’...30%까지 확대해야 광주·전남 지역 신문사는 아예 없어 다양한 목소리 반영 못해

언론사가 인터넷 포털에 뉴스를 제공하는 ‘네이버 뉴스 콘텐츠제휴’ (Content Partner-CP) 87개사 가운데 광주·전남 등 지역 매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12개사에 그치는 등 ‘지역 홀대’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7일 더불어민주당 조인철(서구을) 국회의원이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방 소식을 주로 전하는 지방지는 전체 네이버 CP사 87개 중 12곳(14.1%)에 불과했고, 2016년부터 시행 중인 ‘포털뉴스제휴평가위원회’ 심사로 추가 편입된 지역지는 1곳도 없었다.

무엇보다도 CP사 선정 과정에서 중앙 매체는 본 매체뿐 아니라 자회사까지 6~7개씩 제휴를 맺고 있었지만, 지역 매체는 지역신문과 지역방송까지 포함해도 비율이 낮았다.

이처럼 CP사의 지역매체 배제로 인해 여론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각해지면서 지역 매체 비중을 인구대비 최소 20~30%까지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네이버는 현재 포털뉴스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각 언론사와 3종의 제휴를 맺고 뉴스 콘텐츠를 공급받아 운영하고 있는데, 노출 빈도가 가장 높고 별도 수익이 발생하는 ‘뉴스 콘텐츠 제휴’의 경우 방송사, 신문사, 경제지, 전문지, 매거진, 지역지 등 87개 언론으로 구성돼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톡은 언론 유관 단체 및 이용자 단체, 학계 및 전문가 단체 등 15개 단체에서 추천한 30명이 뉴스제휴평가위원회에 참여해 이를 심사

해 왔지만, 2022년부터 활동이 중단된 상태다.

조인철 의원은 이날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네이버 관계자를 상대로 “포털뉴스 제휴 평가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통해서는 지역 매체는 단 한 곳도 추가된 적이 없었고, 광주·전남의 경우 현재 선정되지 않았다”면서 “네이버가 비수도권 이용자 홀대라는 비판에서 벗어남과 동시에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적어도 지역 매체 비율을 20~30%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또 지역 간의 불균형은 물론 형평성도 유지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내놨다.

조 의원은 “인구 153만명인 강원권은 2개사가 CP사로 선정된 반면, 대구·경북은 인구가 492만명에 이르는데도 CP사는 2개뿐”이라며 “특히 경남·울산은 CP사가 전무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민의힘 최형두(경남 마산·합포) 국회의원의 원도 방문위 등의 국정감사를 앞두고 보도자료를 내 “지역 여론의 전국 확산 기능 약화는 지역 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이어진다”며 “인구 규모 등을 감안하고 지역안배를 통해 지역 매체의 CP사 입점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또 “지역 매체 비중을 인구대비 최소 20~30%까지 확대하고, 현재 87개 CP사를 100개 안팎으로 확대가 필요하다”면서 “이를 통해 지역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용하고, 여론의 수도권 쏠림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영광군수 재선거 후보 TV 토론회 10·16 영광군수 재선거를 일주일여 앞둔 7일 광주MBC에서 열린 영광군수 재선거 후보 토론회 시작에 앞서 후보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시, 1금고 광주은행·2금고 농협은행 선정

1금고 그대로·2금고는 변경 약정 기간 2025년 1월부터 4년

광주시는 7일 “시정에서 금고 지정심의위원회를 열고 1금고에 광주은행, 2금고에 농협은행을 각각 선정했다”고 밝혔다.

광주은행은 1금고를 수성했지만, 2금고는 KB국민은행에서 농협은행으로 변경됐다.

금고 약정 기간은 2025년 1월부터 4년이다. 심의위원회는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와 재무구조의 안정성(27점), 광주시 대출 및 예금 금리(20점), 시민 이용 편의성(24점), 금고 관리 능력(22점), 지역사회 기여 및 광주시와 협력사업(7점) 등 5개 분야를 평가했다. 광주시는 그동안 일괄 신청을 받아 1, 2순위를 선정하던 통합 공모 방식을 유지하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1, 2금고를 따로 신청받는 분리 공모 방식으로

변경했다. 1금고에는 광주은행과 국민은행이, 2금고에는 국민·농협·우리·기업은행 등 4곳이 참여했다.

광주시의 올해 예산은 일반 회계 6조 3975억원, 특별 회계 1조 3793억원, 기금 4332억원 등 총 8조 2100억원이다.

시는 행정 절차를 거쳐 이달 중 최종 선정 결과를 공고하고 11월 중 시 금고 운영 약정을 체결할 계획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벼멸구 피해, 농업재해 인정한다

문금주 국회의원 “농식품부, 국감서 부처 협의 완료 밝혀”

정부가 병해충 피해 사례를 농업재해로 인정한 전례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바꿔 벼멸구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했다. <광주일보 9월 24일 1면>

7일 전남도에 따르면 송마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금주(고흥·보성·장흥·강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관계부처 협의를 완료했다”면서 “최근 고온 영향으로 전남 등을 중심으로 발생했던 벼멸구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기상과의 인과관계, 과학적 근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면서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에서 재해인정 여부를 확정된 후 지자체 피해 조사를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해충 벼멸구 확산으로 피해를 본 논지 면적이 3만 4000ha(헥타르·1ha는 1만㎡)로 집계됐다고 지난 1일 발표했다. 지역별 잠정 피해 면적은 전남이 22개 시·군에서 1만 9603ha로 가장 크다. 다음으로 전북 7100ha, 경남 4200ha, 충남 1700ha, 기타 지역 1500ha 등이다. 시·군별로 고흥(2667ha)이 가장 많고 해남(2554ha), 보성(1988ha), 장흥(1776ha), 무안(1500ha) 등의 순으로 벼멸구 피해를 입었다.

김영록 전남지사도 벼멸구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해 데 즉각 환영 입장을 밝히고 “쌀값폭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농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전종덕 진보당 국회의원과 박형대(진보·장흥 1) 전남도의원, 전국 쌀생산자협회 등은 벼멸구 재해인정을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한국·필리핀 전략적 동반관계 수립...“원전 협력 강화”

양국 정상회담

필리핀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오늘 저와 마르코스 대통령은 양국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고, 한-필리핀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의 정상회담 후 공동언론발표에서 “이번 방문을 통해 양국 관계가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 두 정상은 무탄소 에너지원으로 원전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이번 ‘바탄 원전 재개 타당성 조사 MOU’ 체결을 계기로 양국간 원전 협력 기반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공동언론발표에 앞서 두 정상은 한국수력원자력과 필리핀 에너지부 간 한국수력원자력과 필리핀 에너지부 간 ‘바탄 원전 건설 재개 타당성 조사 협력 양해각서’ 체결식에 참석했다.

바탄 원전은 지난 1986년 원공 직전 체르노빌

원전 사고의 여파로 공사가 중단됐으나, 지난 2022년 취임한 마르코스 대통령은 고질적인 전력난 해소를 위해 바탄 원전 가동을 추진하기로 하고 우리 정부에 도움을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양국 간 경제협력에 한층 활성화해 양국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실질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작년 9월 서명된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을 조속히 발효시켜 양국의 무역과 투자를 촉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양국 정부는 지난해 9월 한-필리핀 FTA를 체결했으며, 지난달 우리 정부는 국회에 ‘한-필리핀 FTA 비준 동의안’을 제출했다.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40326-중-166833호] [광고]

허리 통증이 심할때는

첨단우리병원

허리 디스크 협착증

미세현미경 수술
척추 내시경 수술
고주파 수핵 감압술
척추 유합술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970-6000
광주과학기술원 / 호수공원 앞

Inno-biz기업,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공공하수·공공폐수·공장폐수 고도처리 전문회사

-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 수질 측정대행업
- 공공하수도 (10,000㎡/일)미만 / 하수관로 관리대행업
- 축정기기 관리대행업 (TMS)
- 환경건설설비회사, 환경관리대행기관
- 폐기물수집운반업, 해외건설업
- 총질소처리 공법(A2O4공법) 등 특허 4건, 실용신안 2건
- 하·폐수처리시설 설계 시공, 기술자문
- 공공하수/공공폐수 처리시설 시운전 및 유지관리 용역

수처리용 미생물제, 수처리 기자재 제조

- 미생물제품: 질소처리용 종균제 (Nitcell-O) 하수/폐수처리용 종균제 (Negenzyme)
- 화학약품: 응결제, 고분자응집제, N,P영양제,
- 고효율 STS membrane 불 산기관 (TMS-600+)
- 판형 산기관 (TMP-1000)
- 유기탄소원: 니트셀-C
- 천연고분자 키토산침강제 (Nexchy)
- 자동제어반, 교반기
- 부상조, 슬러지 건조기 등

대기환경분야

-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 VOC Treatment System
- Solvent Recovery System
- SCR De-NOx System
- Sulfur(H2S) Removal System
- Dust Collection System
- 기술상담 및 자문

- 1997 태림인드스트리에 법인설립
- 2011 수출박람회참, 수출유공자 수상
- 2016 나주시 스타기업 선정
- 2016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유망중소기업인)
- 2019 환경부장관상 표창 (환경보전 공로)
- 2020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 2020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지정
- 2021 LG화학 우수협력회사 선정
- 2022 고용노동부 중소기업 선정
- 2023 국제형 모범기업 표창

본사, 공장) 58223 전남 나주시 남평읍 통촌로 19
Tel) 061-336-2588 Fax) 061-336-2587

태림인드스트리
Homepage : http://www.taeri.co.kr
E-mail : master@taeri.co.kr